

배포일시	2011. 2. 25.(금) 11:00 (총12매)	보도시점	즉시
담당부서	대구기상대	담당자	대장 이명수
		전화번호	053-952-0366

대구·경북 3월 기상특성과 기상재해

- 황사로 인한 건강 관리 주의
- 가뭄으로 인한 산불 등 화재 주의
- 경북 동해안지방 중심으로 대설
- 꽃샘추위로 인한 건강관리, 농작물 관리 주의
- 강풍·풍랑으로 인한 시설물과 선박 관리 주의

□ 3월 기상특성

- 3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음.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시적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오기도 하며, 기온의 변동폭이 큼.
- 지형적인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옵니다.
- 일사량이 증가하여 겨울철 동안 얼었던 중국과 몽골의 사막, 황토지역에 눈이 녹으면서 황사가 발생하여 우리 나라에 영향을 줌.
-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통과시 돌풍, 고기압 확장시 강풍과 풍랑이 발생함.

□ 3월 대표적 기상 재해

- 황사
 -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아지고, 일사량이 증가하면서 겨울철 동안 얼었던 중국과 몽골의 사막, 황토지역에 눈이 녹으면서 지면이 건조한 상태가 됨. 이때 저기압이 통과하게 되면 강한 바람에 의해 지면의 먼지들이 불려 올려져 이 지역에 황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황사가 발생하게 됨. 야외활동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대설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눈이 내리는데, 주로 경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북동기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려 도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교통 통제, 빙판길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함.
- 꽃샘추위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므로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 강풍, 풍랑
 - 고기압이 확장하거나 동해상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강해져 강풍이 불고 동해상에는 풍랑이 발생함. 또한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통과시 돌풍이 나타나기도 함.
- 가뭄, 건조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으며, 대구, 경상북도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봄철 가뭄이 옵니다.

※ 첨부 : 3월 기상재해 정보 1부.
 ※ 문의 : ☎ 053-952-0366, <http://www.kma.go.kr>



3월 기상특성과 재해 정보(대구경북)

- 황사·꽃샘추위로 인한 건강관리, 강풍·대설로 인한 시설물 관리 주의, 건조한 날씨 산불 주의 -

대구 기상 대
2011년 2월 25일 11시 발표

□ 3월 기상 특성

- 3월은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맑고 건조한 날이 많음.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일시적으로 꽃샘추위가 찾아오기도 하며, 기온의 변동폭이 큼.
- 지형적인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많이 옵니다.
- 일사량이 증가하여 겨울철 동안 얼었던 중국과 몽골의 사막, 황토지역에 눈이 녹으면서 황사가 발생하여 우리 나라에 영향을 줌.
-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통과시 돌풍, 고기압 확장시 강풍과 풍랑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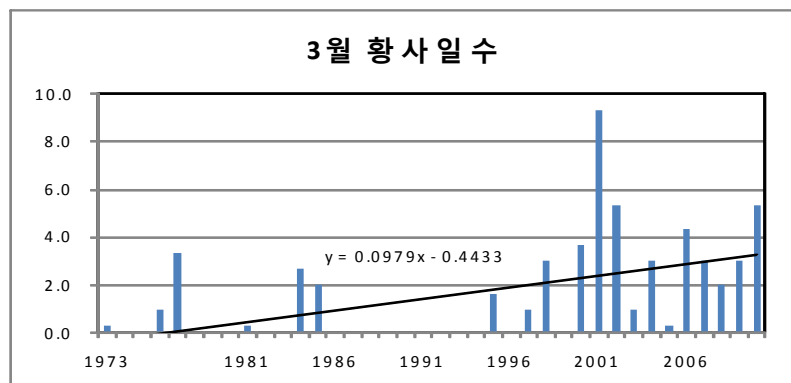
□ 3월 대표적 기상 재해

- 황사
 -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아지고, 일사량이 증가하면서 겨울철 동안 얼었던 중국과 몽골의 사막, 황토지역에 눈이 녹으면서 지면이 건조한 상태가 됨. 이때 저기압이 통과하게 되면 강한 바람에 의해 지면의 먼지들이 불려 올려져 이 지역에 황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먼지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황사가 발생하게 됨. 야외활동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전망> 현재, 황사 발원지에는 눈이 폭넓게 덮여 있고 차가운 대륙성 고기압이 지배하고 있어 저기압 발달이 억제되면서 황사 발원이 매우 약한 상태이나, 대륙성 고기압이 점차 약화되고 눈도 쉽게 녹아 3월에는 황사가 평년(1.7일)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대구·경북(울진·포항) 3월 황사 일수>

(단위 : 일)

순위	1	2	3	4	5
황사 일수	9.3(2001년)	5.3(2010년)	5.3(2002년)	4.3(2006년)	3.7(2000년)



○ 대설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거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눈이 내리는데, 주로 경북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북동기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려 도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 교통 두절, 빙판길 교통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함. 2005년 3월 5일에는 대구·경북 대부분의 지방에 눈이 내려, 영덕에는 61.0cm 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렸으며, 울진에도 39.2cm의 눈이 내렸음. 또한, 2004년 3월 5일에는 대구·경북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문경은 49cm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눈이 내렸음.

<지점별 3월 평년 눈 일수> (단위 : 일)

지 점	대구	울진	안동	상주	포항
눈일수	1.7	2.7	3.1	3.4	1.4

※ 안동 : 1983~2010년 평균, 상주 : 2002~2010년 평균

○ 꽃샘추위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오므로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함. 2004년 3월 6일부터 7일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7일 최저기온이 봉화 -16.2℃, 의성 -11.8℃, 안동 -11.5℃, 문경 -11.0℃, 대구 -5.2℃를 기록하였음.

- <전망> 3월 상순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변동폭이 크겠음.

3월 중·하순 : 이동성 고기압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기온은 중순에 찬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하여 쌀쌀한 날씨를 보일 때가 있겠음.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 강풍, 풍랑

- 고기압이 확장하거나 동해상에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하면 우리나라 주변으로 기압경도력이 강해져 강풍이 불고 동해상에는 풍랑이 발생함. 또한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 통과시 돌풍이 나타나기도 함. 2010년 3월 20일과 21일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일 최대순간 풍속이 울진 29.6㎧, 영덕 24.6㎧, 영주 20.9㎧, 대구 14.8㎧, 포항 20.5㎧ 등 강풍이 불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가 있었음.

○ 가뭄, 건조

-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으며, 대구, 경상북도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 봄철 가뭄이 옴. 1973년 3월에 대구·경북 월 강수량이 4.8mm 로 가장 적었고, 2006년 3월은 11.3mm로 1973년 이래 세 번째로 적어 겨울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였고, 대기가 매우 건조하여 산불 등 각종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함.
- <전망> 3월 상순: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

3월 중·하순: 이동성 고기압과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음.

<대구·경북 3월 강수량 최저 순위>

(단위 : mm)

순위	1	2	3	4	5
강수량(mm)	4.8(1973년)	7.3(2001년)	11.3(2006년)	18.0(1984년)	23.3(2004년)

※ 붙임 : 3월 지역별 기상자료 및 재해 자료

[붙임]

3월 지역별 기상자료 및 재해 자료

대구기상대

1. 지역별 평년 기후값

□ 평균기온(℃)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4.2	5.7	6.1	4.0	4.7	2.6	3.3	4.7	2.4	4.0
중 순	6.4	8.0	8.2	6.4	6.6	5.0	5.6	6.6	5.0	6.3
하 순	7.8	9.4	9.3	8.1	7.7	6.7	7.3	7.7	6.7	7.7
평 균	6.1	7.7	7.9	6.2	6.3	4.8	5.4	6.3	4.7	6.0

□ 최저기온(℃)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1.0	0.9	2.0	-1.6	0.3	-2.7	-1.9	-0.1	-4.4	-1.9
중 순	0.7	2.9	3.8	0.2	1.8	-1.1	-0.3	1.3	-2.3	-0.2
하 순	2.2	4.4	5.2	2.0	3.0	0.6	1.4	2.5	-0.5	1.3
평 균	0.6	2.7	3.7	0.2	1.7	-1.1	-0.3	1.2	-2.4	-0.3

□ 최고기온(℃)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9.9	11.2	10.9	10.1	9.4	8.3	8.8	10.0	10.0	10.5
중 순	12.7	14.0	13.1	13.2	11.3	11.6	12.0	12.3	13.2	13.3
하 순	13.8	15.1	13.9	14.7	12.1	13.0	13.4	12.9	14.5	14.5
평 균	12.1	13.4	12.6	12.7	10.9	11.0	11.4	11.7	12.6	12.8

□ 강수량(mm)

구 분	대구경북	대 구	포항	구미	울진	영주	문경	영덕	의성	영천
상 순	16.2	13.7	19.6	14.1	20.4	17.7	16.6	17.8	12.0	14.0
중 순	16.3	16.3	20.6	13.9	18.1	17.3	13.5	17.9	13.3	15.8
하 순	18.1	17.1	20.7	17.3	19.6	19.4	18.5	17.4	16.1	17.1
평 균	50.6	47.1	60.9	45.3	58.1	54.4	48.6	53.1	41.4	46.9

※ 평년기간 : 1981~2010년

2. 3월 기후 극값

□ 일최저기온(℃) 최저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대구	1915.03.01	-10.9	1977.03.05	-10.2	1951.03.03	-10.1	1941.03.05	-9.7	1936.03.02	-9.6
울진	1977.03.05	-10.2	1977.03.04	-8.8	1974.03.12	-7.6	2006.03.13	-6.8	2004.03.07	-6.6
안동	2004.03.07	-11.5	1977.03.05	-11.5	1977.03.04	-10.2	1988.03.04	-10.1	1984.03.01	-9.6
상주	2004.03.07	-7.9	2006.03.13	-7.8	2007.03.06	-7	2007.03.07	-6.6	2006.03.12	-6.6
포항	1977.03.05	-9.9	1951.03.03	-9.2	1950.03.12	-8.7	1977.03.04	-8.6	1958.03.03	-8.6
봉화	2004.03.07	-16.2	2004.03.06	-14.8	2005.03.06	-14.6	2003.03.04	-14	2004.03.04	-13.1
영주	1988.03.04	-12	1977.03.04	-11.4	1986.03.01	-11.1	1984.03.05	-11.1	1977.03.05	-11.1
문경	2004.03.07	-11	1977.03.05	-10.5	1977.03.04	-10.1	2006.03.13	-8.3	1974.03.12	-8.3
영덕	1977.03.05	-9.9	1977.03.04	-8.7	1984.03.01	-7.4	1974.03.12	-7.1	2006.03.13	-7
의성	1984.03.04	-12.7	1984.03.05	-12.5	1988.03.04	-12.4	1984.03.01	-12.3	2004.03.07	-11.8
구미	1977.03.05	-10.4	1984.03.01	-9.2	1977.03.04	-9.2	1984.03.06	-9.1	1984.03.04	-9.1
영천	1977.03.05	-10.2	1984.03.01	-10.1	2004.03.04	-9.1	1977.03.04	-9	1996.03.05	-8.2

□ 일최고기온(℃) 최고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대구	1973.03.28	26.8	2009.03.19	26.6	1941.03.20	26.1	1998.03.29	25.7	1998.03.30	25.4
울진	1998.03.29	27.7	2009.03.18	25.2	1998.03.28	24.8	2001.03.20	23.6	1971.03.28	23.4
안동	2009.03.19	25.4	1998.03.29	24.8	1973.03.28	24	1973.03.30	23.5	2009.03.18	23.4
상주	2009.03.19	25.1	2009.03.18	24	2009.03.17	23.4	2004.03.28	23.3	2003.03.31	23
포항	1998.03.29	26	2009.03.19	25.9	2010.03.20	25.5	1973.03.31	25	1973.03.28	25
봉화	1998.03.29	25.2	2009.03.19	23.7	1998.03.30	22.9	2009.03.18	21.8	1998.03.28	21.3
영주	1998.03.29	25.2	2009.03.18	23.6	1973.03.31	23.2	1998.03.30	23.1	2009.03.19	22.9
문경	1998.03.29	25	1973.03.28	24.4	1973.03.31	24.2	2009.03.19	23.6	1973.03.30	23.6
영덕	2010.03.20	26.9	2009.03.19	26.8	1998.03.29	26.7	2009.03.18	26	1973.03.31	25.4
의성	2009.03.19	27.2	1998.03.29	25.9	1973.03.30	24.5	1973.03.28	24.4	1973.03.31	24.1
구미	1998.03.29	27.3	2009.03.19	25.9	1998.03.30	25.9	1973.03.28	24.9	1973.03.31	24.3
영천	1973.03.28	26.6	1998.03.30	25.6	2009.03.19	25.5	1998.03.29	25.5	1973.03.31	25.4

□ 최심신적설(c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대구	1957.03.08	12.1	2010.03.10	9.2	1964.03.15	7.1	1951.03.06	6.2	1976.03.03	6
울진	2005.03.05	39.2	2005.03.04	26.5	2004.03.05	14.2	1990.03.07	13.5	1995.03.03	11
안동	2004.03.05	27	2008.03.04	10.3	1976.03.03	8.9	2010.03.10	6.2	1984.03.20	6.1
상주	2004.03.05	30.6	2003.03.06	6	2010.03.10	5.4	2010.03.18	4.5	2010.03.09	3.2
포항	2005.03.05	20.5	2010.03.10	11.3	2008.03.04	7.9	1995.03.04	7	1975.03.01	5.5
봉화	2004.03.05	21.7	2008.03.04	12	2001.03.10	11.8	2003.03.03	9.6	1995.03.10	8.2
영주	2004.03.05	35.8	1984.03.20	21.5	1989.03.24	14.6	2008.03.04	10.2	2005.03.24	8
문경	2004.03.05	49	1989.03.24	13.8	1984.03.20	11.5	1984.03.01	10.7	1994.03.24	6.5
영덕	2005.03.05	61	1995.03.04	8.8	2005.03.04	6	1984.03.20	4.9	1975.03.01	4.9
의성	1976.03.03	16.3	2004.03.05	6.4	1984.03.21	5.3	2005.03.05	4.2	1994.03.12	3.5
구미	2010.03.10	7.9	2005.03.05	7.5	1991.03.11	4.9	1984.03.21	4.4	1984.03.06	3.1
영천	2005.03.05	16.6	1976.03.03	11	1991.03.11	4.2	2006.03.16	3.3	2005.03.06	2.9

□ 일강수량(cm) 최고 순위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대구	1972.03.30	53.2	1966.03.06	49.4	1950.03.06	38.3	1942.03.14	38.2	1961.03.03	35.8
울진	1975.03.05	54.6	1972.03.30	53	1989.03.03	44.1	1971.03.02	43.5	1979.03.29	43
안동	1989.03.03	43.8	1996.03.21	34.9	1974.03.06	28.8	1975.03.05	27.5	1999.03.15	27.2
상주	2004.03.05	25.5	2005.03.22	24	2008.03.23	18.5	2010.03.01	18	2007.03.29	18
포항	1972.03.30	63.7	1950.03.06	47.6	1987.03.23	42.4	1966.03.06	41.7	1961.03.03	39
봉화	1989.03.03	65.9	2008.03.23	36	1998.03.19	31.5	2007.03.31	30	1996.03.07	30
영주	1989.03.03	65	1972.03.30	52	1979.03.29	51.6	2007.03.04	48	1979.03.30	45.7
문경	2004.03.05	54.5	1989.03.03	51.5	1972.03.30	46	1979.03.30	44.6	1979.03.29	40.8
영덕	1979.03.29	56.5	1975.03.05	54.3	1989.03.03	38.8	1996.03.07	38.5	2005.03.05	36.5
의성	1979.03.29	38.3	1999.03.15	28	1996.03.21	26.5	1989.03.03	26.2	1996.03.16	26
구미	1979.03.29	41.6	2007.03.04	31.5	1996.03.07	31	1996.03.21	29	1989.03.24	28.6
영천	1989.03.03	42	1976.03.26	35.3	1989.03.04	32.7	1996.03.07	32	1996.03.16	31.5

□ 일최대풍속(m/s)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대구	1922.03.23	24.8	1952.03.19	21.7	1952.03.23	21.2	1947.03.02	20.7	1964.03.26	20
울진	1973.03.27	20	1981.03.15	18.7	1973.03.23	18.5	1984.03.25	18	1979.03.24	17.3
안동	1987.03.25	16.7	1999.03.05	14.2	2007.03.28	13.4	1984.03.29	13	1984.03.16	13
상주	2007.03.28	13.9	2006.03.12	13	2005.03.24	13	2010.03.16	11.2	2005.03.11	11.2
포항	1952.03.22	30.3	1964.03.26	23	1964.03.27	21.7	1957.03.21	21.7	1954.03.26	21
봉화	2000.03.24	10.4	2000.03.25	9	2000.03.07	8.5	1995.03.10	8.4	2000.03.23	8.2
영주	1995.03.10	15.4	1986.03.10	14	1988.03.12	13.5	1987.03.25	13.5	1984.03.10	13.5
문경	2000.03.07	12.4	1981.03.15	12	2000.03.25	11.8	2000.03.24	11.6	1994.03.23	11.6
영덕	1973.03.28	17.5	1974.03.22	16.5	1974.03.19	16.5	2002.03.19	16.1	1975.03.17	16
의성	1974.03.21	12.5	2007.03.28	12.3	2000.03.25	11.3	1974.03.31	11	1987.03.25	10.5
구미	1977.03.24	17	1987.03.25	15	1974.03.11	15	1974.03.31	14	1977.03.04	13.5
영천	1988.03.30	13	1988.03.29	13	1988.03.02	12.5	1979.03.24	12.5	2000.03.24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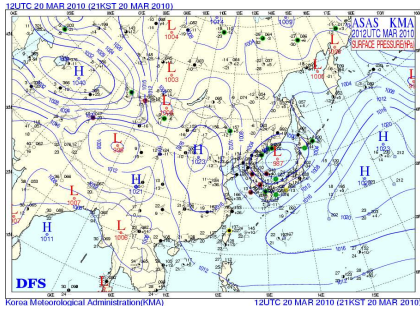
□ 일최대순간풍속(m/s)

지점	1위		2위		3위		4위		5위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날짜	값
대구	1981.03.26	26.2	1979.03.30	25	1972.03.31	24.6	1974.03.21	24.1	1981.03.14	23.7
울진	2010.03.21	29.6	2009.03.19	28.9	2004.03.10	28.9	2010.03.20	28.5	1981.03.15	27.5
안동	1999.03.05	26	2007.03.28	25.2	1987.03.25	22.5	2000.03.24	21	2007.03.05	20
상주	2007.03.28	28.7	2005.03.24	21.5	2006.03.12	20.8	2007.03.05	20.6	2010.03.20	20.1
포항	1964.03.27	28.1	1964.03.26	27.5	1981.03.15	25.8	1961.03.25	25.6	1961.03.03	24.4
봉화	1991.03.26	17.1	1999.03.28	16.7	2004.03.02	16.1	1994.03.23	15.9	2000.03.25	15.8
영주	1995.03.10	24.1	2010.03.20	20.9	2001.03.03	20.8	1994.03.23	20.4	2002.03.21	20
문경	2010.03.16	20.1	1994.03.23	19.6	1995.03.10	19.1	2001.03.03	18.7	2006.03.12	18.1
영덕	2002.03.19	27.2	2001.03.04	25.7	2010.03.21	24.6	2010.03.12	24.5	1999.03.19	23.9
의성	2007.03.28	22.7	2007.03.05	18.2	2006.03.28	17.7	2002.03.21	16.7	2006.03.12	16.6
구미	2007.03.28	22.6	2007.03.05	19.6	1998.03.19	16.4	2004.03.10	16.1	2000.03.25	15.8
영천	2001.03.03	18.2	2002.03.21	18.1	1998.03.20	17.7	2001.03.08	17.3	2009.03.06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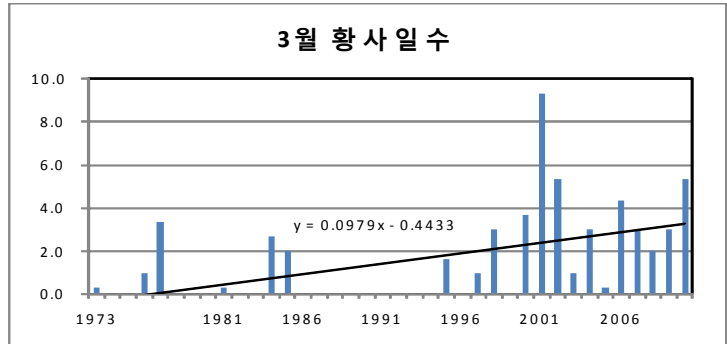
3. 기상재해 사례

□ 황사(2010. 3. 20)

몽골지역에 위치한 발달한 저기압 후면에서 강풍대가 형성되면서 3월 18일부터 몽골과 내몽골 지역에 황사가 계속 강하게 발원하였으며, 대구, 경북지방에는 저기압이 통과한 3월 20일 오후부터 짙은 황사가 나타나 3월 21일 새벽까지 영향을 주었음. 황사 농도는 대구 2,684 $\mu\text{g}/\text{m}^3$ (22시), 안동 1,788 $\mu\text{g}/\text{m}^3$ (23시)로 계기관측 이후 가장 강한 황사를 기록하였으며, 황사주의보, 황사경보가 발효되었음.



지상일기도(2010.3.20. 09시)



대구, 안동 PM10 농도(2010.3.20)

○ 황사 관련 기사

최악 황사 전국 강타...대구 2천86 $\mu\text{g}/\text{m}^3$

20일 사상 최악의 황사가 한반도 상공을 뒤덮으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미세먼지(PM10) 농도가 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현재 지역별 한시권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전도 2천406 $\mu\text{g}/\text{m}^3$, 전주 2천226 $\mu\text{g}/\text{m}^3$, 대구 2천86 $\mu\text{g}/\text{m}^3$, 목산도 1천910 $\mu\text{g}/\text{m}^3$, 영월 1천336 $\mu\text{g}/\text{m}^3$, 광주 1천257 $\mu\text{g}/\text{m}^3$, 속초 1천48 $\mu\text{g}/\text{m}^3$, 수원 402 $\mu\text{g}/\text{m}^3$, 서울 132 $\mu\text{g}/\text{m}^3$ 등을 기록 중이다.

목산도의 오후 8시 미세먼지 농도는 2천712 $\mu\text{g}/\text{m}^3$ 로, 2009년 기상청이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

이번 황사는 비를 뿌린 저기압을 따라 중국에서 서해안을 건너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미쳤고 22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금은 북한지방에서 느리게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린 상태로, 밤부터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다시 '흄'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광주와 전남·북, 목산도, 홍도에 내리던 황사주의보를 황사경보로 대체한 데 이어 오후 7시에는 서울과 경기, 강원, 인천, 충남·북, 경북, 대전, 대구, 제주, 서해5도에 황사경보를 발령했다.

오후 8시에는 경남과 부산, 울산에도 황사경보를 내려 현재 황사주의보가 발령된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전국에 황사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황사주의보는 황사로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경보는 8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될 때 각각 발효된다.

올해 5번째인 이번 황사의 미세먼지 농도는 21일까지 전국에 걸쳐 매우 짙을 것으로 예상돼 노약자나 호흡기 질환자들은 외출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서울, 경기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21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관측돼 비닐하우스나 간판 등 시설물관리에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1일 아침 서울의 수온주가 다시 영하로 떨어질 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계속 영하권을 맴도는 추위가 동반한 이따금씩 내리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전국의 낮 기온이 어제보다 높았고, 특히 남부와 제주도는 20도~25도까지 상승했으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져 춥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기사 작성일: 2010년 03월 20일

2010. 3. 20 연합뉴스

영남브리핑

누렇게 뜬 토요일...도심 유원지 '봄 살증'

20일 오후 8시 대구 도심에 최악의 황사가 강풍을 타고 대구 도심에 덮였다. 이에 따라 봄 야외 나들이를 계획했던 시민들의 발도 굳어 버렸다.

올 봄의 예년보다 깊고 강한 황사가 대구 경북지역을 휩쓸 것으로 전망된다.

◆ 최악 황사로 외출 발달 '박'

대구(기상)는 20일 오후 4시 대구를 비롯한 구미, 영천, 경산, 안동, 칠곡, 성주, 칠곡 등 경북 남부 내륙 11개 시군에 황사 예비특보를 발표했다. 두 시간 후인 오후 6시 대구와 경

산 지역이 함께 안기우물이 쏟아져 대구 영남지역에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 기상청은 가을에 강풍을 예고하고 있다

황사주의보는 황사로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4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황사경보는 800 $\mu\text{g}/\text{m}^3$ 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될 때 내려진다.

또 이날 오후 2시를 기해 대구에 강풍주의보를 발표했다. 오후 8시 현재 최대풍속 11.9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고 연구 동까지 겹쳐 오후 3시부터 한 시간여 동안 대구 전역이 맑아졌다.

이에 따라 대구 도심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뜸했다. 이날 오후 6시 대구 중구 중앙로 거리는 평소 주말과 다르게 한산했다. 혼잡공로를 걷는 한 커플은 황사한 후의 어울리지 않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대구지방청 일 경찰에서 교대로 프리허그를 하고 있는 10여명의 교통학생 앞면 한 이상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오후 늦게 대구 전역이 황사로 인해 무명색 변화와 신천천지에는 사람을 찾기 힘들었다. 마스크를 한 길모퉁이(4)는 '빨간 이' 시간에 조종할 하러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보아도 이른 한적하다고 말했다.

이날 낮기온은 물로 14도(낮최고), 유원지, 대천사(낮) 등을 찾은 시민도 줄었다.

황사발생 단계별 대처 요령

<p>황사발생 단계별 대처 요령</p> <p>황사 주의보 발령 시</p> <p>황사 주의보 발령 시</p> <p>황사 주의보 발령 시</p>	<p>황사 주의보 발령 시</p> <p>황사 주의보 발령 시</p> <p>황사 주의보 발령 시</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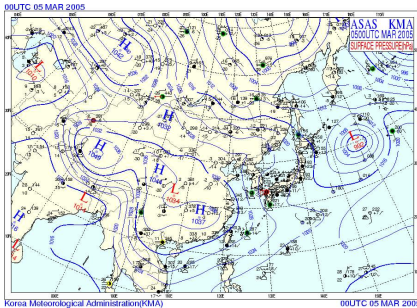
황사가 심할 때는 건조보다 안개를 쓰는 것이 좋다. 차나 물은 많이 마시고 실내에는 가습기나 빨래를 이용해 적정 습도를 유지해주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010-03-22 07:28:12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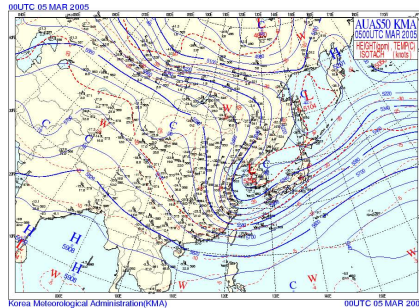
2010. 3. 22 영남일보

□ 대설(2005.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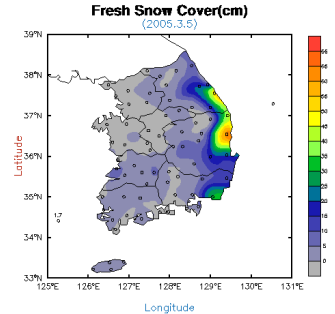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저기압은 일본 동쪽해상으로 물러나고, 서쪽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전면에 들었음. 500hPa에는 동해상에 바이칼호 남쪽에 -42℃의 강한 한기가 위치하여 동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었음. 대구, 경북지방에는 4일 오전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고 동해안지방을 중심으로 30~61cm의 눈이 내려 대설경보가 발표되었으며, 대구를 비롯한 경북내륙지방에도 1~8cm의 눈이 내려 교통이 통제되었음.



지상일기도(2005. 3. 5. 09시)



500hPa 일기도(2005. 3. 5. 09시)



신적설 분포도(2005. 3. 5)

○ 지점별 최심신적설(2005.3.5)

지역	신적설 (cm)	지역	신적설 (cm)
대구	4.5	상주	2.2
문경	0.9	안동	1.2
영주	-	의성	4.2
영덕	61.0	구미	7.5
봉화	1.3	울진	39.2
영천	16.6	포항	20.5

○ 대설 피해 관련 기사

'3월 대설 안심은 금물' 피해액 연중 최다

1999년 이후 10년 동안 눈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3월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대설에 따른 재산 피해액이 가장 큰 달은 3월로 무려 6천989억원에 달했다.

봄이 시작되는 3월에 폭설이 사실상 끝났다고 생각한 나머지 제대로 대비하지 않은데다 겨울보다 강설 횟수가 높았지만, 특정 시점에 강설이 집중된 탓에 다른 달에 비해 재산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10년간 3월에 대설피해가 발생한 횟수는 3건에 그쳤지만, 2004년 3월 일 적설량이 강원 동해 61.8cm, 경북 영덕 61.0cm, 강원 대관령 59.4cm, 강원 속초 54.2cm, 대전광역시 49.0cm 등 일 정도로 '눈폭탄'이 영남과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을 강타했다.

그 당시 전국에서 주택 94동과 학교시설 79동, 속사 8천990동, 비닐하우스 2천221ha가 붕괴했고, 경부고속도로 일대에서는 총정권을 중심으로 차량 1만1천여대와 승객 2만여명이 37시간 동안 고립됐다.

3월에 이어 대설피해가 심한 달은 1월(6천648억원)이었고 12월(5천479억원)과 2월(1천400억원)이 그 뒤를 따랐다.

연중 대설피해 발생건수는 2월(7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12월(6건)과 1월(6건) 순이었고, 인명피해는 12월(14명)에 가장 컸다.

소방방재청은 최근 들어 엘니뇨 등 기상이변으로 3월에도 폭설이 자주 내리는 만큼 강설 때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물론, 신속한 제설작업 태세를 유지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기사 작성일 : 2010년 03월 24일

2010. 3. 24. 연합뉴스

경북 대설주의보...울진 북면 35cm 최고

4일 오후 경북 북부와 동해안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경북지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렸다. 5일 대구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현재 경북 울진에 평균 28.1cm의 눈이 내린 것을 비롯해, 울릉 18.2cm, 영덕 6.3cm, 봉화 2.2cm, 포항 0.2cm 등의 적설량을 기록했다.

특히 울진군 북면과 죽변면에는 35cm와 34cm, 봉화군 석포면 17cm, 포항시 남구 장기면 9cm의 적설량을 보이는 등 부분적으로 많은 눈이 내렸다. 경북에는 영양, 봉화, 영덕, 울진, 포항 등 북부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울진초등학교와 부곡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등 울진지역 6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에는 이날 하루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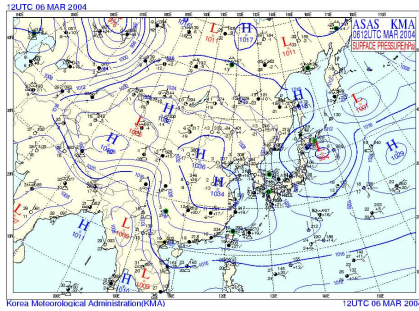
그러나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서 경주시 양북면에 이르는 국도 14호선 일부 구간이 차량 통제 중인 것 외에는 현재 통제구간이 없다. 대구기상대는 "현재 울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 으나 경북 동해안지역에는 오늘 5~10cm가량의 눈이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연합뉴스)

기사 작성일 : 2005년 03월 0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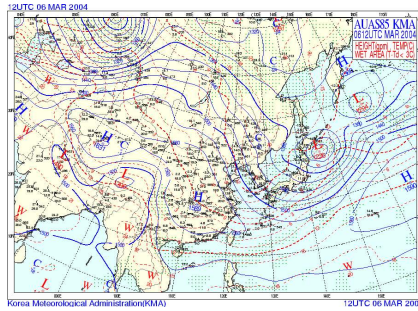
2005. 3. 5. 연합뉴스

□ 꽃샘추위(2004. 3. 6~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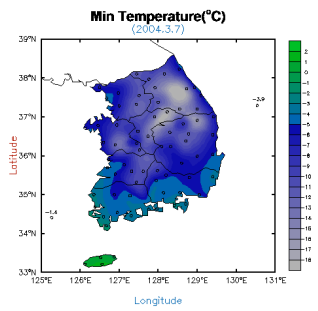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저기압은 동해상으로 물러나고, 북서쪽에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2006년 3월 6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파가 나타났음. 850hPa에서도 만주 북쪽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한기 축이 형성되면서 3월 7일 최저기온이 봉화 -16.20℃, 의성 -11.8℃, 안동 -11.5℃를 기록하였음.



지상일기도(2004.3.6. 21시)



850hPa일기도(2004.3.6. 21시)



일최저기온 분포(2004.3.7)

○ 지점별 최저기온(2004.3.6~3.7)

지점	3월 6일	3월 7일	지점	3월 6일	3월 7일
대구	-3.9	-5.2	영주	-6.6	-8.6
울진	-4.1	-6.6	문경	-6.3	-11.0
안동	-7.3	-11.5	영덕	-4.6	-6.9
상주	-5.6	-7.9	의성	-7.0	-11.8
포항	-3.3	-5.0	구미	-4.0	-7.0
봉화	-14.8	-16.2	영천	-5.0	-6.9

○ 꽃샘추위 관련 기사

꽃샘추위 주말까지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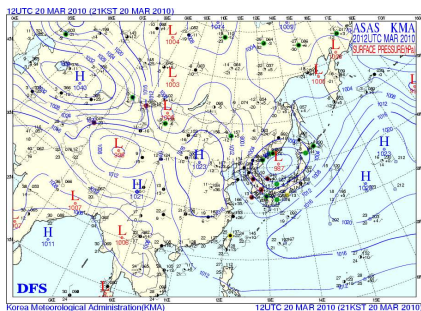
3월의 첫번째 주말은 매우 춥겠다. 대구기상대는 6일부터 저기압이 물러가면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2,3℃가량 더 떨어져 7일 대구의 아침 최저기온이 -5℃, 구미 -7℃, 안동 -9℃, 봉화 -13℃ 등 영하권의 날씨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대는 또 8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8,9,10일 대구의 아침기온은 0~2℃, 낮기온 10,11℃ 등 영상권으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기사 작성일 : 2004년 03월 0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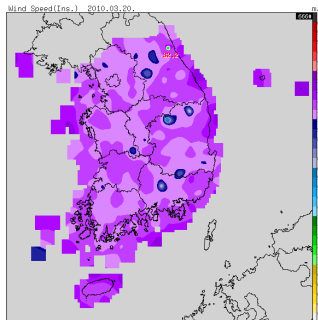
2004. 3. 5. 매일신문

□ 강풍, 풍랑(2010. 3. 20~3.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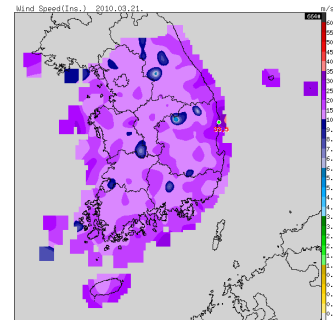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었음. 특히 저기압 후면의 한랭전선이 지나가면서 대구, 경북 대부분의 지역에서 15~29m/s의 돌풍이 불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음.



지상일기도(2010.3.20.21시)



일 최대 순간풍속(2010.3.20)



일 최대순간 풍속(2010.3.21)

○ 지점별 풍속 자료(2010. 3. 20~3. 21)

일자	지 점	대구	울진	안동	상주	포항	봉화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3.20	일 최대 풍속(m/s)	7.3	12.4	7.7	8.9	8.8	2.2	12.9	10.1	11.8	8.8	7.9	8.2
	일 최대 순간 풍속(m/s)	14.4	28.5	15.4	20.1	16.3	4.2	20.9	16.3	20.9	14.6	15.6	15.5
3.21	일 최대 풍속(m/s)	8.0	13.5	8.1	10.3	8.5	2.7	10.7	7.0	15.3	9.7	8.7	8.8
	일 최대 순간 풍속(m/s)	14.8	29.6	15.1	18.2	20.5	4.1	18.3	15.2	24.6	16.0	15.4	16.4

○ 강풍, 풍랑 피해 관련 기사

경북 시설하우스 126동 강풍 피해(종합)

연말뉴스 기사입력 2010-03-22 16:59

(대구=연말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20~21일 경북지역에 순간 최고속도 30m/s의 강풍이 불면서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경북도는 주말 동안 이어진 강풍으로 고령군과 울진군, 성주군 등 3개군 9개 읍·면에서 시설하우스 126동이 파손돼 7천400여만원의 피해가 났다고 22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고령군 1천600만원, 울진군 2천900만원, 성주군 2천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경북도는 피해액 산정에서 단순 비닐 파손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 파손된 사례만 모았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강풍으로 참외 시설하우스 69동이 파손되자 주말에 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산불감시원 등 150명을 긴급 투입해 복구를 마쳤다.

고령군이나 울진군도 공무원을 긴급 투입해 파손된 시설하우스를 응급 복구했다.

성주와 고령지역은 최근 저온과 일조량 부족으로 주력 농산물인 참외나 딸기, 수박 등의 생육이 부진해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성주군 친환경농정과 유우명씨는 "그나마 1~2월처럼 추운 때가 아니어서 피해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sds123@vna.co.kr

2010. 3. 22. 연말뉴스

울진, 강풍 피해 응급복구 농가 일손지원

날짜 : 10-03-28 18:37



울진군(군수 김홍수)이 강풍 피해농가 일손지원에 두 팔을 걷어 붙였다.

군은 지난 3월 20일(토) 갑작스런 강풍(29.6m/s)으로 비닐하우스, 농산물 건조시설, 농업용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관내 농가를 방문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섰다. 이번 강풍으로 입은 피해규모는 16농가, 3천800만 원에 이른다.

공무원, 제5312부대(대대장 배순기) 장병 40여 명이 3월 22일 벌인 긴급복구작업은 고령으로 응급 복구가 어려운 근남면 관내의 농가들의 시설 철거와 지주목 설치 등 응급복구 일손 돕기를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울진군은 친환경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에 일손 돕기 창구를 설치하여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요청이 들어오면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농업용 시설 복구 및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한 농촌 일손 돕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규기자

2010. 3. 28. 경북동해뉴스

